

자연의 영원성

| 루퍼트 스피라 | 유래현 옮김 |

우리는 의식 밖의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고 말하는 저자는,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보는' 세계와 분리될 수 없고, 보는 세계는 우리의 '의식'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으므로, 저 밖이라고 여기는 세계는 결국 우리 '의식'의 세계임을 직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 밖이라는 현상의 변함없는 실체가 '의식' 자체와 다르지 않는 것을...(편집자 주).



폴 세잔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스러져가고, 붕괴한다. 그렇지 않은가? 자연은 언제나 그대로이지만 우리 앞에 드러나는 자연의 현상에는 어떤 것도 존속하는 것이 없다. 인간의 예술은 그 변화상으로 나타나는 자연의 요소들에 더해서 그 불변성의 짜릿한 흥분을 반드시 표현해야 한다. 예술은 자연의 영원성을 맛보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우리 시대에 가장 명철하고 가장 심오한 자연에 대한 통찰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가장 견고하고 오래 존속해온 구조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몽생 빅토와르 산 앞에 서서, “모든 것이 스러져가고, 떨어져 나간다.....?” 라고 세잔이 말한 이유는 뭘까요?

세잔은 보는 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 바깥의 세계를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그 인식 바깥, 의식 바깥에 세계가 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는 것과 분리될 수 없고, 보는 것은 의식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견고한 대상이 의식 안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은 견고한 대상이 생각 속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질로 된 대상만이 공간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만들어진 대상만이 마음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에서 만들어진 대상만이 의식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의식에 나타나듯, 모든 것은 끝까지 분석해 보면 의식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을 지각했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 대상이 의식 안에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지각이 의식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있으면, 이전에 지각된 것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다시 눈을 뜨면 새로운 지각이 나타납니다. 비록 동일한 대상이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사실 새로운 지각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다시 말해 동일한 대상을 일정 기간 동안 바라보기를 반복하면, 마음은 다양한 상 또는 지각을 조합할 것이고 지각의 출현과 소멸 과정을 거치고도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견고한 대상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개념이, 대상을 지각하는 의식과는 무관하게, 시공간 안에 존재합니다.

이 개념 자체도 여타 다른 지각처럼 나타났다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생각으로, 하나의 주체, ‘보는 자’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 보는 자는 소위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 여러 관점을 갖고 있으며, 대상이 나타나기 전, 나타나 있는 도중, 나타난 후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 대상과 보는 자, 둘 다 개념일 뿐입니다. 둘 다 그것에 대한 생각과 무관하게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한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주체, 즉 보는 자는 사실 대상과 주체를 형성시킨 바로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고 존속하는 그러한 대상을 개념화하려면, 그 대상들이 거할 수 있는 곳으로써의 시간과 공간 그 자체부터 먼저 개념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 자체가 개념화된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대상과 그에 상응하는 주체를 개념화하는 마음의 능력이 쓸모는 있을지언정, 정확한 경험 모델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실제 경험이란 다음 지각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의 지각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잔이 말했듯, 모든 것이 매 순간 ‘스러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견고한 사물에 대한 외적 경험은 힘을 잃게 되고, 우리가 사실은 일련의 스쳐 지나가는, 비실체적 지각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이해가 자리 잡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붕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우리는 세잔이 ‘자연’이라 부른 어떤 것이 존속한다는 심오한 직관을 갖게 됩니다.

이 지속성과 불변성의 의미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스러져 가고, 붕괴한다.’라고 이미 피력했듯, 세잔은 어디서 ‘자연은 언제나 그대로이다’라는 앎을 얻었을까요?

인간으로써 우리는, 세잔이 바라보던 산과 똑같이 자연의 일부입니다. 몸/마음/세계는 하나의 통합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라는 이른바 내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에 대한 탐구와, 자연이라는 이른바 외적이며 객관적인 영역에 대한 탐구는 중국에는 같은 실재에 이릅니다.

자연과 사람은 통합 시스템의 일부이며 따라서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공유합니다. 그 있음은 서로 공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대상의 모습을 관찰하며, 세잔은 우리 앞에 드러나는 자연의 현상 중에는 어떤 것도 존속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연 속 지속성이나 불변성의 느낌이 ‘자연의 변화상’에서 비롯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는 암묵적으로, 대상이라는 것이 스쳐 지나가며, 비실체적 지각들의 연속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러나 그 각각의 지각이 하나의

실재를 공유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실재는 그러한 현상에 의해 표현되지만 그것들과 별개로 떨어져 존재합니다.

‘자연은 언제나 그대로이지만 우리 앞에 드러나는 자연의 현상에는 어떤 것도 존속하는 것이 없다.’라는 진술 속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대로’인 자연의 실재Reality 또는 실체Existence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존속하지 않는다’는 말로 표현되는 자연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을 아는 의식, 즉 ‘우리’가 있습니다.

세잔은 어떤 경험 속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체, 현상, 의식.

이 세 가지 요소 중 어떤 것으로부터 세잔은 자연에 대한 우리의 경험 속에 ‘언제나 그대로’이며, 존속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앎을 얻었을까요?

‘우리 앞에 드러나는 자연의 현상들은 어떤 것도 존속하지 않는다’는 이 말 속에서, 세잔은 자연 속에 출현하는 어떤 것도 ‘언제나 그대로’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는 것은 실체와 의식뿐입니다.

* * *

이 둘, 실체Existence와 의식Consciousness 사이의 관련은 무엇이고, 어떤 이유에서 그중 하나 또는 둘 다가 세잔이 묘사하는 ‘언제나 그대로인 것’으로 남게 되는 것일까요?

자연은 형태와 개념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형태는 감각 지각의 기초 데이터이고, 개념은 마음의 개념화 능력에 의해 조합된 해석 혹은 이름표입니다.

대상이나 자연에 대한 우리의 경험 속에도, 있는 그대로인 본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연에는 실체Existence, 실재Reality 또는 존재Being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비록 현상은 항상 변화할지라도, 실체나 실재는 이 모습에서 저 모습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체는 지적 이론이 아닙니다. 비록 대상으로 지각될 수는 없어도, 그것은 일어나는 모든 경험 속에서 표현되고 경험됩니다.

세상은 항상 현존하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영원’으로써의 이것을 실체 또는 존재함이라고 불렀습니다.

‘나타난 것’을 자연의 영원성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부정하게 되면, 가능성 있는 원인은 실체, 존재, 사물들의 있음, 아니면 의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나 존재는 대상에 대한 모든 경험 속에 현존하고, 파도가 사라져도 물 자체는 그대로 남듯, 형태와 관념이 변하거나 사라질 때에도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남습니다.

지각 그 자체는 매 순간 스쳐 지나가고 비실체적이며 사라질지라도 그 모든 지각에는 하나의 실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나타났다가 다른 것으로 바뀌더라도 이 실재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 실재는 현상의 토대 또는 배경입니다. 현상은 환영일 수 있지만, 그 환영은 그 자체로 실재합니다. 여기 환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재를 담고 있습니다.

경험의 실재는 현상 속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실재는 현상에 의해 표현됩니다.

어떤 경험이라도 그 본질을 깊이 탐구해 보면, 실재가 경험의 근본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상의 내용물입니다.

사실 정말로 경험되어 온 것은 실재뿐입니다.

이것이 확실해지기 전에는 우리는 현상만 봅니다. 이것이 확실해진 후에 우리는 현상과 실재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밧줄을 뱀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뱀이라는 개념과 형태, 그 현상은 실재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밧줄이라는 실재는 뱀의 본질이고 뱀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뱀에 대한 경험 속에는 실재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밧줄입니다.

밧줄은 뱀에 의해 숨겨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밧줄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뱀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밧줄입니다.

뱀이라는 현상의 경험은 밧줄에 대한 경험입니다. 다만 그렇게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뱀에 대한 공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 결과이고, 이것은 밧줄이라는 실재를 알게 되자마자 사라집니다.

뱀은 밧줄 없이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밧줄은 뱀이라는 현상의 본질이고 실재입니다. 밧줄 없이는 뱀도 없었겠지만, 뱀이 없었더라도 밧줄은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 * *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이 비실체적이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도, 자연은 실재한다는 것과 거기에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고, 그것에 대한 실재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실재하는 것은 본래 존속됩니다. 현존하지 않는 것을 실재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현존하고 있는 것만이 실재적이고, 실재를 품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꿈이라는 현상은 실재처럼 보이지만 깨어날 때 우리는 그것이 의식 속을 스쳐 지나간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꿈속에 나타난 호랑이는 실재처럼 보이지만 깨어날 때 우리는 그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고 마음이 의식 내 현상들을 단순히 구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의식은 마음의 실재입니다. 꿈속의 호랑이는 ‘호랑이’로써는 비실재적이지만 의식으로써는 실재적입니다.

호랑이가 존재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실재가 있습니다. 호랑이의 실재는 호랑이의 토대이자, 본질이고 증인인 의식입니다.

의식은 호랑이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호랑이로써 자명합니다. 그것은 호랑이라는 현상 속에서, 그리고 그 현상으로써 스스로를 압니다.

깨어 있는 상태에서의 우리의 객관적 경험 역시 의식의 스쳐 지나가는 현상들을 조합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철저히 분석해보면, 꿈과 각성 상태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꿈과 각성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들의 토대와 본질, 즉 그 둘의 실재는 동일하며, 현상들이 사라진 후에도 남습니다.

현상은 그 밑에 깔린 실재에 의해서만 만들어집니다. 거울에 비춰진 상은 거울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실재는 언제나 현존합니다. 우리는 그 부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실재 외에는 아무것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변화는 현상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이라곤 이것이나 이것, 또는 이것의 모양을 취하는 실재뿐입니다.

어떻게 실재하는 어떤 것이 비실재할 수 있을까요? 실재는 어디로 가버릴까요?

그 속성, 그 본질이 실재인 어떤 것이 어떻게 그 밖의 어떤 것이나, 비실재가 될 수 있을까요?

자연에 대한,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한 경험 안에 실재하는 그 무엇이든, 존속하는 그 무엇이든, 정말로 경험되는 그 무엇이든, 이 모든 것은 일체의 경험 속에 현존합니다.

실재는 모든 경험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모든 경험 속에 있는 실체이고, ‘존재함’이고, ‘있음’이고, ‘바로 이리함’이고, ‘아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꿈속에서나, 현상들 사이 간격 내처럼 어떤 대상성도 없는 순간에도, 실재는 언제나처럼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 형체 없는 실재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현상에 의해 가려지거나 드러납니다.

형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한계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한계는 형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마음이나 감각을 통해 그 한계가 경험되어야 대상에 대한 경험으로 지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여기에 설명된 것은 경험의 내적인 사실입니다. 현재 이 경험 속에는 실재적인 어떤 것이 있습니다.

경험 속에 의심할 여지없이, 끊임없이 현존하고 있고, 아직 아무런 외부적 특성을 갖지 않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직접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유일한 답은

의식뿐입니다. 의식은 어떤 현상이 진행되는 중에도 의심할 여지없이 경험되지만 대상이라는 특성은 전혀 갖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식 그리고 실재나 실체는 둘 다 모든 경험 안에도 존재합니다.

의식과 실체는 어떤 관련을 맺고 있을까요?

그 둘이 다른 것이라면 그 사이에 가장자리, 경계가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런 경계를 우리가 경험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양자에 대한 내밀한 경험으로부터 의심할 여지없이 현존하며 ‘경계 지어진 대상’이라는 특성이 없는 존재로써의 의식과 실체를 이미 인정한 바 있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대상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것들이 분리되어 있다가나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든 혹은 그렇지 않든, 우리의 실제 경험 속에서 그것들은 하나로써, 의식/실체이지, 의식 그리고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의식과 실체가 하나라는 우리의 내밀하고,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그것은 우리, 즉 의식이 실체라는, 우리가 우주의 있음 그 자체라는 직접적 경험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러한 이해가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나’는 진짜 ‘나’인 의식입니다. ‘아버지’는 우주의 실재인 신입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이 말은 의식과 실재, 자아와 모든 것의 본질적인 일체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전통 속에서 ‘나’는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몸/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끊임없이 해석되어 왔고,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무한한 거리를 갖는 ‘외부’에 투사되어 왔다는 사실이 그 원래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 *

의식은 모든 지각이 나타나 있는 동안에 현존하고, 지각의 대상이라는 측면이 사라진 후에도 언제나처럼 남습니다.

지각이 나타나든 사라지든 의식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각의 형태를 취하지만, 거울이 대상의 모습을 담지만 변화 없이 그대로인 것처럼, 원래 그대로 남습니다.

우리는 지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경험하지만 의식의 나타남과 사라짐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의식이 존속하고,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재 및 실체도 존속합니다.

물론 이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식과 실체가 시간적으로 존속한다는 암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각이 사라질 때, 시간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두 개의 지각 사이의 길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각이 현존하는 중이라도 시간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시간에 대한 환상만이 현존합니다. 이른바 두 지각 사이의 틈바구니에서는 시간에 대한 환상조차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과 실재는 시간적으로 영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늘 현존합니다. 언제나 지금입니다. 영원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의식 속에 때때로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영원성은 그 영속하는 실재를 가리키기 위해 세잔이 사용한 용어이고 그는 이 영원성의 느낌을 ‘맛보게 해 주는’ 것이 예술의 목적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예술이 우리를 실재에 이르도록 이끌고, 실재를 가리키고, 본질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예술은 우리를 현상에서 실재로 이끌어야 합니다. 예술은 사물들의 본질을 가리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실체적이고, 스쳐 지나가는 감각 지각의 현상들, ‘자연 속에서 변하는 요소들’을 활용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는 문학에서 설명되는 것처럼 예술이 실재를 묘사한다기보다, 실재를 맛볼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예술은 우리를 직접적 경험, 즉 우리의 진정한 실체인 의식이 실재의 본질이며, 실존하는 것은 오직 존재라는 내밀한 얇으로 데려다 줍니다.

* * *

윌리엄 블레이크는 “창공을 가로지르는 모든 새는 오감에 에워싸인 기쁨의 광대한 세계이다”라는 말 속에 똑같은 이해를 표명합니다.

그는 새를 자연의 상징으로 활용합니다. 그는 새의 실재는 ‘기쁨의 광대한 세계’이지만, 그 실재는 오감에 의해 가려져 있다고 말합니다. ‘에워싸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는 감각이 어쨌든 실재를 제한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감각은 현상의 배경 조건이 됩니다.

블레이크가 자연과 대상의 실재를 ‘기쁨을 주는’ 것으로 설명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세잔 역시 ‘영원’으로 부른 자연의 실재가 ‘짜릿한 흥분’으로 경험된다고 말합니다.

블레이크와 세잔 모두 의식과 실재의 단일성 내에 본래 존재하는 것은 ‘기쁨’의 경험이고, 경험은 ‘흥분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경험을 ‘나마 루파 사트 치트 아난다nama rupa Sat Chit Ananda’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는 인도 철학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나마Nama’는 ‘이름Name’입니다. 그것은 생각에 의해 대치되거나 조건화되는 경험의 일부입니다. 경험을 모양 짓기 위해 마음이 활용하는 이름표인 개념이라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것은 의자이다”라고 말할 때, ‘의자’라는 개념이 나마입니다.

‘루파’는 ‘형태’입니다. 그것은 감각에 의해 대체되는 경험의 일부입니다. 각각의 감각은 세계에 상응하는 대상을 갖습니다. 시각은 보이는 대상이라는 대응물을 가집니다. 청각은 들리는 대상이라는 대응물을 가집니다. 감각은 실재가 그 자신의 특성에 따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을 조건화합니다.

‘나마’와 ‘루파’는 모두 자연 또는 어떤 대상이라는 현상을 구성합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과 감각에 의해 부여받은 특성과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경험의 진실한 속성을 이해하고자 하면, 우리는 인지의 도구, 즉 마음과 감각이라는 경험 기관에 의해 대체되는 경험의 일부를 그 경험으로부터 벗겨내야 합니다.

세잔의 말에서 이미 보았듯, 만약 우리가 나타난 것, 어떤 경험의 대상이라는 측면을 떼어내면 실체Existence 또는 존재함Beingness, 그리고 의식Consciousness이라는 의심할 여지없는,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경험이 남습니다.

그래서, 경험의 진실한 속성을 탐구할 때 우리는 먼저 이름과 형태, 즉 실재를 ‘에워싸는’ 마음과 감각의 가리개인 ‘나마’와 ‘루파’를 제거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험의 의심할 수 없는 사실들, 인도 철학에서 ‘사트’와

‘치트’라고 불리는 실체 그리고 의식이 남습니다.

모든 경험에는 경험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은 그게 무엇이든 실재합니다. 그것은 존재를 가집니다. 그것이 ‘사트sat’입니다.

모든 경험에는 경험을 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 의식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현존합니다. 그것은 의식합니다. 그것이 ‘치트chit’입니다.

분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존재의 관점에서, 우리는 “나는 그것을 본다”라고 말함으로써 경험을 공식화합니다. 다시 말해 ‘나’ 의식이 대상 또는 세계인 ‘그것’을 봅니다. ‘치트’는 ‘사트’를 경험합니다. 그것들은 아는 행위를 통해 결합되는 두 가지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만약 경험을 주의 깊게 탐구해 보면, 의식과 실재가 하나라는, 즉 ‘자’와 ‘타’ 사이, ‘나’와 ‘너’ 사이, ‘나’와 ‘세계’ 사이, ‘치트’와 ‘사트’ 사이에 어떤 분리도 없다는 앎에 이릅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경험은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은총bliss’이라고 번역되는 ‘아난다ananda’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번역은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체성에 대한 깨달음이 진귀하고 이국적인 상태를 동반하며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엔 단순히 이것만이 아닌 어떤 것, 특수한 경험에 대한 추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난다’는 아마도 평화 또는 행복 또는 단순히 충만으로 번역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일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 또는 존재의 평온으로 묘사될 수도 있습니다.

평화와 행복은 보통 갈망하는 대상을 획득함으로써 생겨나는

몸/마음의 상태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인도 전통의 체계 내에서는 평화와 행복이 우리의 본성 내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그러한 경험을 ‘흥분’ 그리고 ‘기쁨의 세계’로 묘사하는 세잔과 블레이크의 생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마음과 감각이라는 인식의 도구에 의해 강제되거나, 또는 블레이크의 말대로, 에워싸인 그 부분을 분리해내면 의식과 실재는 하나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 고유한 일체성은 드러나는 것이지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 또는 행복은 그 경험에 대한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 * *

비록 모든 대상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경험으로부터 비롯되어 표현된 것일지라도, 이러한 앎이 현존으로 빛나고, 그러므로 그 앎을 직접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신성한 예술 작품이라 불릴 만한 특별한 범주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상들은 그 앎을 불러일으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 경험은 ‘미美’로 설명되었습니다.

미는 대상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의 근본적 속성 안에 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과 실재가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경험입니다.

그러한 신성한 예술 작품은 우리 안의 심층기억을 휘저어 놓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뭔가가 있음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의식은 스스로를 인식합니다. 의식은 본연의 미, 본연의 존재를 기억해냅니다.

의식은 경험이 비춰진 거울에서 그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의식의 실재를 경험합니다.

그러한 예술 작품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맛보게’ 해줍니다.(끝) 

- 이 글은 『Nature's Eternity』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루퍼트 스피라** | Rupert Spira | 어릴 적부터 현실의 본질에 깊은 관심을 갖고서 20년 동안 우스펜스키, 크리슈나무르티, 루미, 상카라, 라마나 마하리시, 스리 니사르가다타 마하리지, 로버트 아담스의 가르침을 공부했고 1996년에 스승인 Francis Lucile을 만났다. 스승으로부터 진 클라인, 아트마나다 크리슈나메논의 가르침을 알게 되었으며, 특히 경험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저서 『The Transparency of Things』와 총 2권으로 구성된 『Presence』는 경험의 비이원적 본질을 철저히 탐구한다. 영국에 거주하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열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에서 수련을 이끌고 있다. 홈페이지: non-duality.rupertspira.com

역자 | **유래현** | <지금여기> 번역위원. 서울대학교 작곡과 졸업 후 현재는 프랑스에 머물며 파리고등사범음악원ENMP에서 영화음악, 오케스트레이션, 작곡을 공부하고 있다.